

## 7. 수삼체형과 홍삼품질과의 관계

( 한국인삼연초연구소 ) 이 종철

수삼의 동체길이, 직경, 길이와 직경의 비가 각각 다른 원료삼을 선별하여 홍삼제조후 수삼체형별로 홍삼품질을 조사하였던 바

1. 홍삼수율은 22 ~ 25 % 범위였으며 동체길이가 긴 수삼에서 홍삼수율이 높았다.
2. 고급홍삼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삼무게는 80 - 100 g, 동체의 직경은 2.5 ~ 3.0 cm, 동체의 길이는 7 ~ 8 cm였다.
3. 내공, 백피의 발생비율은 수삼의 크기 및 체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내백발생비율은 수삼의 체형과 일정한 관계가 없었다.
4. 홍삼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은 주로 큰 수삼에서는 내공, 작은 수삼에서는 백피였다.

## 8. 高麗人蔘葉의 光合成能力에 관한 研究

### 季節的 變異에 미치는 영향

( 충남대학교 농대, 한국인삼연초연구소 ) 조 재성\*  
원 준연  
목 성균

2년근 및 4년근 인삼을 대상으로 전광량의 5%, 10%, 15%, 20% 및 25%에서 생육시켜 6월 및 8월에 잎의 광합성능력과 호흡 그리고 엽록소 함량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.

1. 2년근 전행에서는 전광량의 10%내외 2년근 후행 및 4년근전 후행에서는 전광량의 15%내외에서 생육시킨 인삼잎이 최대 광합성을 나타내었다.

2. 생육초기에 비해 생육후기에 광합성의 능력은 현저히 감퇴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그 정도는 전광량의 15~20%하에서 재배된 인삼잎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.
3. 2년근에서는 생육후기에 호흡량이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4년근에서는 생육후기에 대체로 호흡량이 증가되었고 엽록소의 증감도 호흡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.

## 9. 고려인삼의 種子發芽에 關한 研究

(I) 溫度가 開匣種子의 胚生長에 미치는 영향

(충남대학교농과대학농학과) 曹 在星, 姜 熙慶\*

1. 종숙종자의 직파시 전체배율은 59.12%로서 관행개갑처리구의 평균배율 64.70%에 비해 약간 낮으나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.
2. 개갑종자를 0°, 5° 및 10℃에 치상하여 배율을 각각 조사하였던바 10℃에서의 배신장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5℃였으며 0℃에서의 배신장율이 가장 낮았다.
3. 개갑종자의 온도처리에 따르는 발근율은 10℃처리구에서 현저히 높고 빨랐으며 다음이 5℃구였고 0℃에 치상한 종자에서는 130일까지도 전혀 발근되지 않았다.

## 10. 인삼의 出芽 및 生育特性에 關한 生育調節物質의 영향

(한국인삼연초연구소) 정 찬문\*, 안 상득  
권 우생

生長調節物質인 GA, Kinetin 및 2, 4-D를 濃度別로 處理하여 日